

식민지 대만에 있어서 일본인 농업이민

- 사카구치 레이코(坂口禰子)의 이민 삼부작을 둘러싸고 -

리원루(李文茹)*

들어가며

식민지 대만문단에서 활약한 작가 중에서, 사카구치 레이코(1916~2007)는 얼마 안 되는 일본인 여성작가의 한 사람이다. 전전까지 사카구치의 작품은 대략 세 가지 타이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대만인 가정이나 식민지인으로서의 대만인의 모습을 그린 것이고, 두 번째는 사소설풍의 것이며, 세 번째는 대만에 이주한 일본인 농민들에 관한 제재이다. 본 논문은 주로 세 번째 일본인 농업이민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같은 시기에 대만에서 활약한 다른 일본인 작가와 비교하면 사카구치 작품의 특징은 여성 묘사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성작가가 중심이 되어 있는 대만 문단 안에서 사카구치는 자신의 여성성을 이용하면서 여성을 묘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춘추(春秋)』(『대만시보』, 1941.9.1)와 『흑토(黑土)』(대만방송국 응모소설, 1940.11)는 대만에 이주한 여성의 농경의 고생과 향수를 묘사하고, 『등불(燈)』(『대만문학』, 1943.4)은 남편이 군대에 징집된 아내를 그린 것이다. 또 작품집 『서광(曙光)』(타이페이:성흥출판부, 1943.12)에 수록된 『파괴(破壞)』(『대만신문』, 1940.12.4·7·11·14)는 <불결한 피>로 고민하는 소녀를, 『서광』(『대만

* 담강(淡江)대학 일본어학과 · 조교수.

문학』, 1943,7)은 농업이민자, 특히 여성 안에 존재하는 미묘한 인간관계 등을 그리고 있다. 이와 같이 사카구치는 여러 가지 타입의 여성을 통하여 식민지에 있어서의 일본인 여성의 생활을 작품화하고 있다.

사카구치 레이코의 종전까지의 작품에서는 내대융합(內台融合)이나 대만원주민 외에 일본인 농업이주민을 다룬, 소위 이민소설이 큰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같은 제재를 다루어 대만문단에 발표된 하마다 하야오(浜田隼雄)의 『남방이민촌』¹⁾(해양문화사, 1942.7)은 연구대상으로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것에 비해 사카구치의 이민소설은 간과되고 있다.²⁾

사카구치는 1938년에 대만에 와 본격적으로 작가로서 대만에서 활약하기 시작한 것이 태평양전쟁 개시 전해인 1940년이다.³⁾ 당시 대만문단에서는 황민화(皇民化)정책 등을 제재로 한 작품이 다수 발표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풍조 속에서 일본인 농업이주민을 제재로 한 사카구치의 작품은 드문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카구치의 이민소설은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밝고 적극적으로 엄혹한 시대를 극복하는 태도로의 변화가 보인다. 여기서는 전쟁에서 적극적인 일면을 찾아낸 태도를, 전쟁하에 놓인 사카구치의 전쟁관으로서 파악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민소설 속에 있는 전쟁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사상은, 피식민지인들에게 발신하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일본인 노동자여성에 대한 편견의 시선이 움직이고 있다. 본론에서는 사카구치의 이민3부작『흑토』(대만방송국10주년현상소설, 1940.11), 『춘추』(『대만시보』, 1941.9.1), 『서광』(『대만문학』, 1943,7)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후방의 내지인 농업이민촌을 그린 이들 작품은, 전시하 대만사회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명하고 또 전시하 일본여성작가와 식민지와의 관계를 고찰한다.

1) 1941.10~1942.6까지 『문예대만』에 9회에 걸쳐 연재되었는데 중단되었다. 1942년 7월에 해양문화사에 의해 단행본 『남방이민촌』이 일본에서 출판되었다.

2) 사카구치의 이민소설에 관한 선행연구는 몇 개인가 있지만 그 대부분은 상세한 작품분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작품 소개에 머물고 있다. 예를 들어 구로카와 하지메(黒川創)『홍수의 기억』(『국경』, 메타로그, 1998.2)이 그것이다. 그 외에, 오히라 미치(大原美智)는 이민소설로서 『흑토』와 『향수』를 채택했지만 작품소개에 머물고 있다.(『사카구치 레이코 연구-일본인작가의 대만경험-』(대만: 성공대학 역사연구소 석사논문, 1997.6)

3) 1939년 3월, 기관지염으로 구마모토에 돌아갔다. 1940년 4월 사카구치 다카토시(坂口貴敏)와 결혼하여 다시 대만으로 건너왔다.

1. 내지인사회에 있어서의 계급문제

사카구치가 이민소설을 제재로 한 계기는, 작가개인의 경험과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관영이민사업의 실시에 의해 성공을 거둔 대만동부지방의 화련(花蓮), 대동(台東) 등과 비교해 사카구치가 살고 있던 서부지방, 특히 대중(台中) 주는 대만전체에서도 농업이주민이 적은 지역이었다. 1917년에 일단 중지된 이민사업은 15년 뒤인 1932년에 재개되었다. 당시, 내지인농촌의 건설이 동부지방에서는 이미 실험이 끝났지만 서부지방에서는 새로운 시도였다.⁴⁾ 1936년에 내지인 농업이민 10개년계획이 실시되어 1937년에 대중주 북두가(北斗街) 및 계주압(溪州壓) 내의 탁수계(濁水溪) 신생지는 이주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또 모집예정지역은 규슈(九州), 추고쿠(中國), 시고쿠(四國) 및 대만(臺灣)도내였다.⁵⁾

사카구치는 1938년에 대중주 북두군(현 창화현 북두진)에서 교편을 잡았다. 북두진은 1937년에 농업이민지로 지정되어 그곳에 이주해 온 것은 규슈, 시고쿠 및 추고쿠에서 모집한 농민들이다. 덧붙여 말하면 규슈출신인 사카구치에 있어서 규슈에서 온 농업이주민은 각별한 친근감이 있었을 것으로 상상된다. 이와 같이 사카구치의 작품에 규슈에서 북두군으로 이주한 농민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작가의 실체함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카구치의 이민삼부작 속에서 몇 번이나 강도되고 있는 것은 농업이주민들의 고통이다. 사카구치는 육체적인 고생과 정신적인 고통을 통해 식민지로 건너온 농업이민을 묘사하고 있다.

먼저 육체적인 고생에 대해 보기로 하겠다. 사카구치의 이민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전부 내지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일본이외의 장소에서 신천지를 발견하기 위해 온 농민들이다. 그러나 신천지로 꿈을 안고 대만에 온 이주민들은 반드시 행복해진다기 보다 오히려 절망적인 광경에 아연한 사람들이 많다.

대만이민에는 거의 규슈, 추고쿠, 시고쿠가 많고 모지(門司)에서 대만항로의 기

4) 『대만시보』, 1937.3, pp.2-3.

5) 『대만시보』, 1937.1, p.186.

선에 올라타는 것이 8할 정도나 되었다. 그들은 배안에서 토지를 할당받았다. 그것은 전혀 미지의 땅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이미 운, 불운이 판연히 구별되어 있었음을 그들은 자신들의 땅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중략) 첫날부터 생각지도 못한 고생을 한 이주민들은 모르는 사람들과 낯선 땅에서 매일같이 실망을 더해 갔다. 가장 큰 실망은 뭐니 뭐니 해도 땅에 대한 실망이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이것이 네 땅이라고 펼쳐진 넓은 땅을 긴가 민가 보면서 너무나도 광막함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 같은 서글픔을 느꼈다. (중략) 아버지와 자식과 손자와의 생활은 그곳에서 의지할 곳을 찾고 있는 데도, 그들은 아연해져서 어디까지 이어지는 지도 모르는 모래땅에 계속 서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실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들의 실망은 분노로 바뀌어 갔다. 단 한 번의 제비뽑기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생각하자 그들은, 축축한 검은 땅에 이미 파종을 끝낸 같은 이주민인 다른 부락의 행운을 증오하는 것이었다.

(『흑토』, pp.177-179)

약간 긴 인용이 되었지만, 여기에서는 이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이나 자신들의 운명이 간단한 제비뽑기로 결정되어 버린 것에 대한 분노, 신천지에 기대와 꿈을 건 농민들의 절망에 빠진 심경뿐 아니라 이주민들의 서로에 대한 복잡한 심경까지 절실하게 그려져 있다.

일본에 있어서 과잉인구조절 및 빈농구제정책으로 개시한 농민이식사업은 대만의 경우, 주로 사탕수수재배를 목적으로 한 제당자본에 의해 기획되었기 때문에 농업이주민은 자본주의기업의 노동력이기도 했다.⁶⁾ 대만전도 각지에서 불하된 개간지를 무상으로 분배되었다고는 하지만 제당기업의 착취가 있었기 때문에 이주 당초, 농민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극히 곤란하였다.⁷⁾ 그런 현실을 사카구치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논밭으로 주어진 것은 이미 본도인(本島人)의 손에 의해 첫 번째 경작이 이루어져 (중략) 이것이 익어 수확을 해야 비로소 그들의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때

6) 야나이하라 다다오(矢内原忠雄(2001) 『일본제국주의에 있어서의 대만의 위치』 『야나이하라 다다오』 『제국주의하의 대만』 정독』 이와나미현대문고.

7) 이민자들에게 분배된 땅의 다수는 대만총독부가 대만인농부로부터 강제로 빼앗은 것이었다. 그러나 사카구치의 이민소설에는 토지를 빼앗긴 대만인(본도인)농민에 대한 관찰, 동정이 그려져 있지 않다.

까지 석 달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맡겨졌다고는 해도 황금색의 이삭이 물결치는 것을 보기까지는 또 4개월 넘게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주민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반년이었다. 그들의 생활은 내지에서 가져온 얼마 안 되는 돈과 수확을 예상하여 제당회사로부터 차입한 사탕수수의 비료값, 장려자금 등에 의해 근근이 버티어나갔다. 다달이 줄어드는 돈과 함께 걱정으로 몸도 여위어갔다.

(『흑토』, p.179)

대만에 도착한 이민자들에게 던져진 곤경만이 아니라 자본사회의 희생자로서의 농민의 모습도 사카구치는 간과하지 않았다. 농경지를 소유해도 최초의 수확을 내기까지 적어도 반년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농민들은 제당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든가, 얼마 안 되는 이민장려금을 받거나 하는 수밖에 생계를 이을 도리가 없었다. 차용금이자에 고민했던 부분은 명백하게 쓰여 있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제당자본에 착취된 농업이주민의 입장을 상기 인용에서 엿볼 수 있다.

토지와 제당자본에 의해 생겨난 곤란한 생활뿐 아니라 사카구치의 이민소설에는 이주민의 복잡한 심경도 그려져 있다.

오래전에 이주해 온 대다수 내지인이, 관리거나 교사, 상인이었는데 자연히 그들에게 하나의 내지인으로서의 포즈가 생겨 있어 그들이 농민으로서 땅에 붙어서 일을 해 가는 이상, 그 포즈를 뛰어넘을 용기가 필요했다. 본도인은 내지인을 하나의 타이프로 묶어 생각하는 버릇이 있었으므로, 이주민들이 본도인들이 가장 꺼리는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친애를 느끼기 전에 모멸과 조소를 끼얹는 것이다. 이주민의, 농민으로서의 생활의, 궤도를 벗어난 것이 생겨날 필연성이 거기에 있었다. 농업은 쿨리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다른 일을 구하는 등 이민 본래의 사명을 벗어난 생활양식이 그곳에 전개되고 있었다. (중략) 언제 모내기가 시작하고 끝나는지 모르는 여자가 많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자신들의 착오를 조금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춘추』 『대만시보』, pp.109-111)

일본사회의 하층계급에 속하는 농민들이 대만이주를 계기로 허영심이나 체면 문제로 농민으로서의 자신의 위치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다. 게다가 그 중에는

식민자로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쿨리를 고용해 본업인 밭농사를 방기하는 사람도 나온다. 이와 같이 완전한 식민자가 될 수 없는 딜레마를 사카구치는 농업이주민에게서 관찰하고 또 그것에 의해 식민지에서의 일본인이주사회 속에도 사회계급이 세분화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⁸⁾

사카구치도 그 남편인 다카토시도 교직원이었다. 교사로 일한 엘리트인 그들/그녀들에 있어서, 대만에서는 소수인 농업이주민은 하층계급에 속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거기서 농업이주민의 딜레마에 관한 묘사는 상위에 속하는 식민자와 하위에 속하는 피식민자, 이 양자의 사이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권력관계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상세하게 논술하겠다.

식민자의 고생 이외에 향수 제제도 이민삼부작 속에서 떠돌고 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흑토」에서 말하는 이민자들의 향수, 고생 등의 비애부분이 뒤에 발표되는 「춘추」속에서는 점차 표면화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서광」에 이르면 전쟁이 국민에게 부여하는 사명을 강조하는 것에 의해 향수의 감상이 완전히 <나라를 위한 봉공>으로 승화되어 버린다. 다음은 이민삼부작 속에서 향수는 어떻게 표상되고 있는가를 고찰하겠다.

2. 빛바래져 가는 향수

이주민에 있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의 하나는 고향생각으로, 그것은 사카구치의 이민삼부작 속에서도 중요한 모티브이다. 이 절에서는 사카구치의 이민삼부작에 있어서 향수에 대한 묘사법의 변화를 작품의 발표순서에 따라 비교 분석하도록 하겠다.

사카구치의 최초의 이민소설 「흑토」는, 「대만방송국십주년문예」당선작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마키가는 제한된 일본국내의 토지에서 아무리 농경에 진력해도 수확이 늘지 않는 것을 고민해 이주를 생각했지만, 그 그들/그녀들이 최후로

8) 식민지에 있어서 제국측의 사회계급의 세분화에 대해, 도야마 이치로(富山一郎)『열대과학과 식민지주의 - 「도민」을 둘러싼 차이의 분석학』(사카이 나오키(酒井直樹) 등 편(1996) 『내서널리티의 탈구축』 백서방)참조

선택한 것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간 만주가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 익숙한 규슈와 같이 기후적으로 온난한 남국 대만이였다.

똑같이 <생활에 찌들고 땅에 달라붙어 있는 기생충 같은 비참한> 농업이주민이라고는 하나 어떤 자는 장래가 보이지 않는 생활에 눈을 감으려는 듯 횡설을 펴마시고 어떤 자는 고생을 견디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하지만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마키가는 심한 노동을 견디며 농경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육체적인 고통은 견딜 수 있다 해도 향수의 정서는 완전히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키가는 고향의 어머니로부터 각기를 예방하기 위해 보내져 온 고향의 흙을 자신들의 밭에 뿌려 견디기 어려운 향수를 위로하는 것이다. 고향과 신천지를 둘러싸고 작품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고향과 연결이 생긴 것이다. 남쪽 끝의 나라에, 그들이 뼈를 묻으려는 이 땅에 고향의 흙이 섞인 것이다. 마키가 손바닥으로 일궈 탄식한 고향의 흙이다. 야채 꽃이 가득 핀, 희고 차가운 서리가 내린 흙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 의 끊이지 않는 슬픈 결합이다.

(『흑토』, p.183)

고향의 땅을 이용해 각기를 방지한 것은 <고향땅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인간의 약함을 구제해 주는 감상적인 미신>이지만 농민특유의 땅에의 애착으로서 표상되는 향수는 농업이주민의 애절함을 리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흑토』는 허무하고 애절한 향수로 둘러싸여 막을 내린다.

『흑토』에 이어 발표된 『춘추』는 내지인교사 유키코의 눈을 통해 농업이주민, 가세일가의 향수를 그린 작품이다. 가세일가는 구마모토에서 대만에 이민하고 나서 이미 3년이 지났다. 식민자의 면목을 지키기 위해 모든 농사일을 쿨리에 맡기는 대다수 농업이주민들과 달리 가세일가는 쿨리를 고용하지 않으면서도 식민자의 허영심을 버리고 스스로의 손으로 밭농사를 짓는다. 이러한 가세부부는 <내지인의 백성혼을 심어주러 왔다>는 사명감을 강하게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전중에 부족한 쌀의 증수에 진력하는 것을 통해 스스로 농민으로서의 <봉공>을 실천하고자 한다. 그러나 열심히 자신의 밭을 경작해도 고향에의 사모는

끊을 수 없는 것이다. 「춘추」속에는 토착신앙(진수신(鎭守神))을 통해 농업이주민들의 향수가 그려지고 있다.

노모는 이주민의 생활에서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의 슬픔, 쓸쓸함을 본 것이다. 노모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아무래도 안정되지 않는 자신의 혼의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노인은 외곶으로 계속 생각했다. 그러다 문득 부락 주위를 보았을 때 그곳에는 신앙과 안심의 장소인 신사도 사찰도 없었다. (중략) 영혼이 머물 곳을 가지지 못한 이주민의 생활은 참을 수 없는 불안함이다. 내지를 그리워하고 내지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도 신앙을 통한 연결이 이곳에 없기 때문이다.

(「춘추」, pp125-126)

확실히 부지런히 일해 거친 땅을 멋지게 개간하여 오래도록 그곳에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식민지대만에서의 생활의 뿌리가 넓어진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대만에서 토착신앙을 가지지 않은 농업이주민의 혼은 영원히 <우주를 떠돌며> 의지할 곳을 얻지 못한다고 묘사하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은 채 「춘추」는 「흑토」와 같이 향수의 감상 속에서 이야기는 끝난다.

「서광」이 되면, 계속 이야기되어 온 농업이주민들의 애절한 향수는 후방건설에 의해 해소되어 버린다. 「서광」은 젊은 남녀 두 사람(오사무(修)과 시나코(品子))의 덧없는 사랑을 그리면서, 농업이민촌에 있어서의 복잡한 인간관계 및 후방건설의 모습을 묘사한 작품이다. 만약 「흑토」와 「춘추」를 식민지에 막 이주한 농민의 개간이야기라고 한다면 「서광」은 이주지에 정착한 후의 농업이민촌 및 이주민 2세대를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카구치의 이민소설 전2작은 애절한 향수 속에서 막을 내린다. 「서광」도 마찬가지로 향수의 감상에 젖은 작품이지만 다른 것은 감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이주민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땅에 이 흙에 이 모래 속에 자신을 묻고자 굳게 결심하여 편안해진 사람이 몇 명일까. 그들 대부분이 돈을 손에 쥐게 되면 내지로 돌아가리라, 태어난 고향에 돌아가 다시 시작하리라, 고 안절부절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20년, 30년 뒤에, 여하튼 죽기 전에는 내지로 돌아가자고 대부분의 마음은 이곳을 반쯤 떠나 있었다.

그것은 감상은 아닐까. 그런 감상에 이끌린 자가 타관에서 돈벌이나 할 작정으로 온 이 마을이라면 차라리 와르르 무너지는 게 낫다. 이 마을은, 이 땅은, 뼈를 묻고 피를 쏟고 눈물로 단단하게 만드는 마을사람의 생명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 감상을 견디어 이 땅에 자신의 무덤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핑계 대지 않고 이 땅에서 죽는 것이다. 그러면 자식도, 손자도 증손자도 이어갈 것이다. 자신들 일대가 고향에의 사모를 단절해버리면 스스로 계속되는 것이다. 그때 이 마을은 고향이 되는 것이다.

(『서광』, pp.142-143)

『흑토』속에서 농업이주민과 식민지와의 관계가, <땅에 달라붙어 있는 기생충 같은 비참함>으로 결합한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에 비해 『서광』속에서는 농민의 이주지에 대한 귀속의식, 심경에 큰 변화가 보인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 비참하기까지 슬픈 결합>이라고 하는 심경에서 자손의 <고향>으로서 이민촌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지에 달한 심리적 변화이다. 초기 이민소설 속에서 끊임없이 말해 온 통절한 향수는 『서광』이 되자 소실되어간다.

『서광』의 주인공인 시나코와 오사무는 내지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고향에의 미련은 간단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사무는 자기 대에서 고향에의 사모를 단절하면 다음 세대부터는 여기가 고향이 되기 때문에 버리기 어려운 향수는 자기 한 사람 속에 담아두면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향수의 감상을 체관하는 중에 후방건설에 분투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따라서 향수는 대동아전쟁의 격화와 함께 차차 사라져감과 동시에 식민지땅을 개간하는 힘으로 전환되어 거기에 그들/그녀들은 전쟁에서 적극적인 일면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다.

전쟁터에서 신업이 이루어지는 신국일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마을에서 이 사람들의 위에도 자연히 그러나 격심하고 혹독한 변화가 행해진 것일 것이다. 전과의 보도가 있을 때마다 한 꺼풀씩 벗어가는 옷이었을 것이다. 별거숭이에 가까워짐에 따라 마을사람의 영혼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서로의 체온의 따스함을 절절히 느끼는 인간미 넘치는 것일 것이다. (중략) 그렇게 생각하면 시나코는 전쟁으로 얻은 것이 단지 물건만이 아니라 마음, 이라는 사실에 경배하고 싶을 정도의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서광』, p.145)

<본격적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도 높이 하고자 용을 쓰는 이주민들은 서로 돕는 한편 타인의 결점에도 용서가 없었다>고 하는 것처럼 봉건적인 이민촌 속의 인간관계는 대단히 복잡하다. 하지만 전쟁의 격화에 따라 마을내의 복잡한 인간관계가 점차 단순화할 뿐 아니라 촌민들도 마음을 하나로 하여 이민촌건설에 노력하기 시작한다. <전쟁으로 얻은 것이 단지 물건만이 아니라 마음, 이라는 것>이라고 외친 시나코의 감동에는 전쟁에 의해 감동, 희망을 찾아내는 이주민의 모습이 보인다. 또 열성적인 이민촌건설에 의해 이민자들은 버리기 어려운 향수의 감상으로부터도 구원받는다. 이와 같이 전쟁과 후방건설에서 희망, 기쁨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일면을 발견하고 하는 관념을 사카구치가 안고 있는 전쟁관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민촌의 건설은 후방건설에 머무르지 않고 외지건설, 즉 일본국토의 확장으로 연결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쟁으로부터 적극적인 사정을 찾아내고자 하는 사카구치의 전쟁관에는 식민지 지배에 공범이 되는 관념이 잠재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이민소설에서 읽어낼 수 있는 사카구치의 전쟁관은, 제국주의를 내면화하고 있는 사카구치의 측면을 부각한 것이기도 하다.

농업이주민의 대다수는 돈을 벌려고 대만에 도향했기 때문에 그들/그녀들의 심상풍경 속에 내지라고 하는 고향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농민들은 일시적인 거주지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등장인물·오사무의 생각 속에 식민지대만에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각오가 보인다. 예를 들어 작품에서는 오사무는 시나코와 함께 이민촌에 있는 아이들의 교육에 종사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아이>를 키우는 꿈을 그리고 있는 인물로서 조형되고 있다.

묵묵히 농사일을 하면서 애절한 향수를 안고 있는 「흑토」, 「춘추」의 등장인물과 비교하면, 이들 초기이민소설 속에서 표상되는 향수, 불안 등의 감상, 소위 소극적인 감정은 「서광」에 있어서 후방건설에 분투하는 것에 의해 불식되어 버리게 된다. 「흑토」에서 「서광」에 이르기까지 사카구치의 작품의 변화는 전쟁의 격화에 따라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전쟁의 의미를 의심하지 않고 희망에 가득찬 쓰기로 묘사된 사카구치의 이민소설은 전시체제에 휩쓸린 사카구치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사카구치는 후방건설, 이민촌건설을 그리는 것에 의해 사람들을 전쟁에 동원하는

일에 일역을 한 것이다. 그러나 흥미 깊은 것은 사카구치가 품은 <전쟁의 미학>의 배후에 노동자여성애의 편견의 시선이 은폐되고 있는 것이다.

3. 여성노동자에의 시선과 우생학

이민촌에서 생활하는 여성들 사이에 있는 복잡한 인간관계 및 심리적 갈등을 그린 것은 사카구치 이민소설의 특징의 하나이다. 이 절에서는 「서광」을 중심으로 이민삼부작에 있어서 여성농업이민 묘사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것에 의해 식민지에서의 내지인사회의 권력구조를 구명한다. 먼저 초기의 「흑토」부터 보도록 하겠다.

마키는 그때부터 2년 정도의 세월을 육체적인 고통으로 생각해 낼 수 있다. 격심한 노동에 헉헉거리며 허덕였던 세월이었다. 어깨는 그 추억에 무거운 압박을 느꼈다. 다리는 밤마다 감각을 잃을 정도의 노곤함으로, 육체에서 벗어난 물질과 같이 내던져졌다. 마키는 한밤중에 몸이 뽀뽀이 해체되었다가 다시 아침에 조합되는 것 같은 그런 환각에 빠졌다. (중략) 내지에서 온 직후에는 아름다운 사과 같은 뺨을 하고 있던 이주민들이 점점 김푸른 피부가 되어 가는 것은 생활에 찌들고 땅에 달라붙어 있는 기생충 같은 비참함으로, 마키에게는 그 중의 한 사람인 자신의 모습도 함께 쓰다듬거나 어루만지거나 하고 싶은 것 같은 감상이다.

(「흑토」, pp.181-182)

여기에서 토지의 개간이 주는 고생은 육체의 비유에 의해 강조되고 있다. 「흑토」의 히로인, 마키는 남편의 결단에 따라 일가를 이끌고 대만으로 이주했다. 마키는 규슈에서 대만에 이주하기까지 남편에게 이주에 대한 불평을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또 이주하고 나서도 헌신적으로 남편과 아이의 시중에 애태우면서 밭을 일군다. 통절한 향수를 견디는 한편 열심히 자신의 땅을 개척하는 마키는 후방사회에 있어서 이상적인 어머니/ 아내로서 조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춘추」에 나오는 여성들(가요(加代)와 그 시어머니)도 마키와 같이 밭일이 능숙하고 온순한 여성으로서 그려진다. 즉 「흑토」와 「춘추」에 있어서 농업

이주민여성은 후방사회의 이상적인 처이자 어머니로서 그려지고 있다. 그에 비해 『서광』이 되면 오로지 농사일에만 애쓰는 여성은 육체적인 노동자에 지나지 않게 된다.

사와와타리(沢渡)의 집에 비하면 가키사코(柿迫)에는 겨우 아주 튼튼한 손이 있을 뿐 열심히 일한다, 는 식이었다. 다른 사람의 두 배 이상의 일을 태연히 하는 조지(貞治, 가키사코가의 남자주인)과 말주변도 좋고 솜씨도 좋은 하기(조지의 처)와 6년의 의무교육을 의무라서 나오고 그보다 일 쪽이 재미있다고 한, 근본부터 백성의 자식인 나이 많은 딸 데츠(鐵), 데츠와 비교하면 조금은 언니를 닮은 여동생 미요(美代).(중략) 아무도 식사 때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배를 가득 채우겠다는 식욕만이 촉수를 늘려 이야기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여유가 없다. 하여튼 이 허기진 배를 채운다, 는 식이다. 배가 불러도 태평스레 이야기 같은 것을 하는 이는 없었다. (중략) 먹은 사람부터 자신의 더러워진 식기를 들고 물가로 간다. 그리고 서둘러 일로 돌아가는 것이다.

(『서광』, pp.91-92)

『서광』은 땅의 개척에밖에 눈이 가지 않는 농업이주민인 가키사코가를, 무지한 육체노동자로서 표현한다. 주목해야 할 것은 가키사코가를 둘러싼 묘사에 우생학의 개념이 부수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장에 나간 남성이 많고 여성의 결혼문제에 위구심을 갖게 된 시대에 가키사코가 여주인 소이는 자신의 딸인 데츠를 마을의 우수한 청년, 오사무와 결혼시키고 싶어 한다. 그러나 동시에 소이도 <근본부터 백성의 딸>인 데츠보다 고상하고 게다가 여학교도 나온 시나코에게 오사무를 빼앗겨 버리거나 않을까 걱정한다. 그래서 소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나코를 중상하려고 한다. 그러나 시나코를 비방하면 할수록 소이의 나쁜 심성과 시나코의 순결함이 대조적으로 되고 노동자의 저속함과 지식인의 품격이 강조되게 된다. 게다가 우생학이라고 하는 마치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것 같은 언설이 보충되어 노동자와 지식인 사이에 한층 명백한 서열관계가 형성된다.

열성의 노동자와 우성의 지식인에 차이를 두는 의도는, 결혼과 우생학을 둘러싼 시나코와 오사무의 말다툼에서 읽어낼 수 있다. 시나코는 <열성을 구하기

위해 우성이 결합한다고 하는 것은 우성의 추락>, <선조에의 모독>이라고 하고, 오사무는 <수평선이하라고 하는 것 같은 것은 지금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우성과 결합하면 반우성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는 열성을 구하기 위한 결혼지도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⁹⁾ 시나코와 오사무 사이에 나누어진 우생학과 결혼과의 관계에 대해, 양자의 논점은 다르다고 하나 <우성>과 <열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서로 통하고 있다. 즉 <우성>은 시나코와 오사무가 대표하는 것 같은 영리한 지식인이고 <열성>은 신체장애에 의한 기준이 아니라 가키사코가의 여성들로 대표되는 무지한 육체적인 노동자이다. 이러한 관점은 사카구치가 품은 일본인노동자계급에 대한 사고와 관련되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전시하에 인적자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결혼보국운동이 고취되기 시작했다. 나카무라코우(中村幸)는 15년 전쟁시기의 결혼과 인구증가정책에 대해 이하와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국가목적을 위한 국책결혼은 『여성보국의 길』, 『결혼보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새로운 시대의 결혼으로 선전했다>고.¹⁰⁾ 즉 전쟁중에 봉공방법의 하나로 여성에게 결혼이 장려되었다. 그렇다고는 하나 전장에 나가는 남성이 많았던 시기는 여성에 있어 바로 결혼난의 시대이기도 했다. 따라서 『서광』에 있어 가키사코가의 여성들은 결혼에 강한 희망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나코는 그녀들과 달리 결혼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나코는 소위 <결혼보국>의 길에서 이탈한 인물인 것이다.

여자가 남으면 결혼 못하는 처녀도 있을 것이다. 자신은 백모에 의해 여학교도 졸업했다. 이주민의 자녀들을 가르치며 산다, 는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결혼하는 게 좋다. 나는 싸우는 일본의 한쪽 구석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올바른 생활을 쌓아올려 가면 되는 것이다. 오사무에게 지금 매달려 헤어지는 것은 싫다, 고 하면 내일이라도 결혼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내 마음에 다른 것으로 내민 팔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봉공이라고 믿는다. (중략) 이 생활을 나는 이곳에

9) 『서광』, 인용은 pp.130-131까지.

10) 나카무라 코우『인구정책의 제상 -결혼보국을 둘러싸고』(『전쟁과 여성잡지 -1931년~1945 -』 근대여성문화사연구회, 도메스출판, 2001), p.127.

서 출발하고 싶다. 이 아이들 속에서 나는 내가 양친으로부터 세상에서 물려받은 것을 바르고 아름답게 쏟아주고 싶은 것이다. 나는 이 아이들에게 나 나뉠의 꿈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이 아직 바깥 마른 마을에서 자라날 아이들의 맑은 샘이 되고 싶은 것이다.

(『서광』, pp.153-154)

교육에 의한 있는 힘을 다한 <봉공>에 인생의 목표를 정한 시나코는 <나라에 도움이 되는 아이>를 교육하는 것에 의해 꿈을 잃은 전시하의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꿈을 보여주고 싶다고 결심했다.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결혼하는 게 좋다>고 한 시나코의 말에는 여학교출신의 지식인으로서의 자부가 나타나 있다고 생각된다. 즉 고등교육을 받은 자신에게 아이들을 교육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발농사밖에 할 수 없는 노동자여성은 결혼에 의한 봉공을 선택하면 되는데 비해 자신은 그들이 할 수 없는 교육에 봉공을 다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지식인으로서의 자부 외에 결혼을 거부하는 시나코의 태도에는 여성으로서 주체가 확립된 측면도 보인다. 나카무라 코우는 전쟁으로 부여된 사명에 여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 지를, 여성잡지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고 있다.¹¹⁾ 여성은 <조혼장려=다산보국>에 대해서는, <승복할 수 없는 개인감정>을 가지는 한편, 여자교육의 보급과 함께 자아가 싹텄기 때문에 종래의 결혼에 대한 상식을 깨어 갔다. 나카무라의 눈에 의하면 전시하에 종래의 결혼·가족제도를 의문시하는 태도는 여성으로서의 주체가 확립하고 나서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서광』에서 그려지는 가키사코가와 시나코의 결혼에 대한 다른 반응의 배후에는 <낳아라 늘려라> 하는 인구정책을 위한 국책결혼이 고취시킨 시대배경이 있다. 결혼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가키사코가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시나코는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런 묘사 속에는 노동자여성과 지식인 여성을 차별화하는 구조가 잠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상세하게 말하면 가키사코가는 전시하에 고취된 <다산보국>이라고 하는 결혼정책에 응함에 비해 시나

11) 주10과 같음, p.155.

코는 아이들의 교육에 헌신하는 삶을 선택하고 양자의 다른 선택은 아이를 낳는 노동자와 아이를 교육하는 지식인여성이라는 구도를 이루고 있다. <나라에 도움이 되는 아이>를 교육하는데 헌신하는 시나코의 묘사는 육체적인 노동이 일방적으로 강조되는 농민여성보다 각별하게 미화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서광』은 농업이주민 여성들의 현실적인 일면을 묘출하고 있는 작품이지만 엘리트여성/노동자여성이라고 하는 구도에 의해 그려지는 이민소설의 근거에는 이민사회의 엘리트계급에 속하는 작가가 품은 노동자여성에의 편견의 시선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나오며 - 이민삼부작에 보이는 내지인사회의 권력구조

이상, 사카구치의 이민소설에 대해 논해 왔다. 다음으로, 대만문단에 있어서의 사카구치의 이민소설의 위치에 대해 생각하고 싶다.

황민화운동이나 동화정책을 둘러싼 작품이 대만문단 안에서 다수 발표되고 있는 중에서 사카구치는 농업이주민을 제재로 이민삼부작을 발표했다. 사카구치가 농업이주민을 소설화한 동기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작가 자신의 실제함에 의거한 동기이고,¹²⁾ 또 하나는 엑조티즘에 대항하여 리얼리즘을 시행한다고 하는 대만문단을 의식한 동기이다.¹³⁾ 그러나 대만인독자가 중심이

12) 사카구치가 복두소학교에 근무했을 때 그 부근에는 일본인이민촌인 풍리촌이 건설되어 그곳에서 농업이주민의 아이들을 가르친 사카구치는 자주 전화로 다케나카 노부코(竹中信子)에게 이민촌생활 등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다케나카 노부코 『식민지대만의 일본여성생활사 쇼와편하』 다하타서점, 2001.10, pp.207-208). 그 외 조부와 모친의 출신은 백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농업이주민에 대해 특별한 친근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사카구치는 다루미즈 텐케이(垂水天恵)의 인터뷰에서 답했다. 『사카구치 레이코 인터뷰 - 대중과 대만의 사람들』, 대만: 『일중언어문화비교연구』3, 1994.12, p.122)

13) 당시 대만문단에서 양성했던 리얼리즘과 엑조티즘을 둘러싼 논쟁과 관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만문단건설론』(황득시(黃得時) 『대만문학』, 1941.9), 『사카구치레이코의 『정일가』에 대해 - k씨에의 보고』(염견훈(塩見薰) 『대만공론』, 1944.1) 등등. 니시가와 미츠루(西川滿)가 대표하는 『문예대만』과 장문환(張文環)이 대표하는 『대만문학』이 각각 엑조티즘과 리얼리즘을 내걸며 대항하고 있었다. (류서금(柳書琴) 『전쟁적문단: 일거말기대만적문학활동(1937~1945)』(대만: 대만대학 석사논문, 1994). 정수용(井手勇) 『결전시기대만적일본인작가여성황민문학』(대만: 성공대학 석사논문, 1995) 등등). 『문예대만』계재된 『남방이민촌』과 『대만문학』에 계재된 『서광』에 대한

있던 대만에 있어서 엄혹한 환경을 살아온 일본인농업이주민을 제재로 한 작품에 어떤 의미가 주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해명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먼저, 농업이주민이 경험해온 시대적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다. 원래 이주장려정책은 일본국내의 과잉인구를 해결할 목적으로 국가에 의해 개시된 정책이었다. 이식민의 모집지정지는 식량문제를 안고 있는 지방이 많고 거기에 참가한 응모자도 고향에서 생활난에 허덕이던 농민이 많았다. 그러나 개인차가 있다고는 해도 경제적인 이유로 신천지를 원하는 해외이주는 태평양전쟁의 격화에 따라 점차 제국의 식민지 지배의 최전선에 선 자로서의 자부도 하나의 계기가 되게 한다. 가령 토지에 대한 애착에서 농업이민사업이 식민지에서의 내지인(일본인)정주책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한 가나자와 기치타로(金澤吉太郎)의 언론을 농업이식민에 식민지 지배에의 협력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예로서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¹⁴⁾

대만이주사업의 경우는 <내대인융합>, <현지민 국민화 촉진>, 국방상의 필요나 대만의 농업경험을 금후의 남방진출에 살리는 등, 농업이주민은 이들 신성한 사명을 국가로부터 받았다. 따라서 식민지에 건너온 일본인농업이주민은 식민지정책실현의 최전선에 선 이민이기도 했다. 사카구치의 이민소설에 등장하는 농민은 가나자와가 주장한 농업이주민의 사명과 같은 책임을 요구받고 있고 가령, 『춘추』의 주인공 준은 그 전형이다. 준은 <나는 대만에 내지인의 백성혼을 심어주기 위해 왔다>라든가 <쌀의 증수라는 급무와, 농민의 사명>과의 관계 등을 설명하면서 <이 땅은 받은 땅이다. 우리 것이고 우리 것이 아니다. 이 황량한 땅을 키워 가며 이곳에서 얼마든지 증수하는 것을 생각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 백성의 봉공>이라고(『춘추』, p.90) 주장한다.<이민 본래의 사명>을 일탈한 농민들은 준의 신념을 듣고 바로 감화되어 또 식민자의 <허영심>까지 버리고 다시 밭농사에 진력했다.

하마다가 쓴 『남방이민촌』과 달리 사카구치의 이민삼부작에서는 향수나 어려운 생활을 견딜 수 없다는 이유로 핫술에 빠진 농민은 그다지 그려지고 있지 않

비교를 다른 기회에 하고 싶다.

14) 『최근의 본도농업이식민사업경제』 『대만시보』, 1937.5. 제국에의 협력은 주로 만주, 대만 등의 식민지에서의 이민사업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와이, 브라질의 이민사업은 그 범위의외이다.

다. 그녀의 이민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향수의 감상을 품고도 열심히 농사일에 노력하는 농민들이다. 대립, 다툼 또는 자포자기 등에 흔들리는 묘사는 있어도 <나라를 위한 봉공>에 의해 농민들은 하나가 되어 이민촌건설에 진력한다. 거기에서 이민삼부작은 의도적으로 이민촌에서의 적극적인 일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서 말하면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이민소설도 한층 밝고 적극적으로 변해간다. 즉 사카구치는 이민촌의 리얼리티를 묘사하고자 하면서도 식량자원 등이 부족한 전시하 사회에 사는 험난한 현실에 닿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전쟁에서 희망을 찾고자 하고 있다. 이민소설에 보이는 전쟁에서부터 적극적인 일면, 희망 등을 찾고자 하는 창작태도는 사카구치가 취한 전쟁협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일본인농업이주민을 소설화한 의도 뒤에 대만에 살고 있는 피식민지인들에게 <나라를 위한 봉공>에 헌신하자고 하는 호소나 격려가 깃들여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추측된다. 지배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층계급에 속한 일본인농업노동자라고 하는 설정을 이용하여 피식민지인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가 있고 <나라를 위한 봉공>에 참여하자고 하는 호소가 보다 유효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만인독자가 중심이 되고 있는 대만에서 이민소설을 발표한 것은 사카구치의 작가로서의 <봉공>인 것이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민소설 속에서 발하는 전쟁협력의 신호는 피식민지인들에의 프로파간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전쟁 프로파간다의 이면에는 일본인지식인여성의 노동자여성에의 편견의 시선이 우직하고 있다. 즉 우생학이라는 명목으로 지식인여성은 자신들을 우성의 것으로, 노동자를 열성의 것으로 분화하여 그 위에 <결혼봉공>과 <열성구제>결혼론이 얽여져 식민자여성에 의한 동성애의 계층분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사카구치는 일본인농업이민의 신고와 비애를 동정하고 그것을 리얼하게 소설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 의도는 지식인으로서의 사카구치가 갖고 있는 일본인여성노동자에의 편견의 시선을 동반한 것이기도 했다. 게다가 제국의 하층계급에 속하는 농업이주민을 제재로 한 이민소설은 피식민지인인 대만인의 동정심을 환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쟁협력의 프로파간다로서도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인농업이주민에 대해 동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

각하기 쉬운 사카구치의 이민삼부작은 식민지에 있어서 내지사회에서의 여성과 여성 사이의 권력구조를 이야기할 뿐 아니라 식민지 지배를 내면화하고 있는 제국여성의 전쟁협력의 일면도 부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부기]

1. 「흑토」와 「춘추」, 「서광」의 인용은 『식민지문학정선집 대만편 정일가·서광』(유마니서방, 2001.9)에 의한 것이다.

2. 사카구치의 전후작품에 관해서는, 졸고 「식민지적 〈화해〉의 행방 -전후에서 70년대까지의 일본사회에 있어서의 무사사건문학을 둘러싼 일고찰」(『국제일본학연구총서 11 이문화로서의 일본 -내외의 시점』(호세이대학국제일본학연구센터, 2010.3, pp.388-405)도 동시에 참조를.